

이제 다시 시작이다

- ‘파문’ 지상중계 #2, 김세준 편

제 1부: 일자리가 답이 아니다

‘돌연’ 기본소득운동을 참여하게 된 까닭은?

한인정: 안녕하세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 ‘파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이신 김세준 대표님이십니다. 저는 고정MC 한인정이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객원MC로 오신 서희원 선생님이십니다. 서희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서희원: 안녕하세요니까. 방금 소개 받은 서희원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기본소득부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 시민교육실현실 ‘해’ 대표를 맡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기본소득의 가치를 좀 더 널리 알리고자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 현재는 민주주와 기본소득을 좀더 알리기 위해 작은 책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인정: 책방을 하신다니까, 부산에 이제 갈 곳이 한 곳 더는 것 같아요.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파문의 두 번째 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원 선생님, 우리 게스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서희원: 김세준 대표님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서는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셨고, 학생운동도 하셨고, 대기업에 취업하셨고, 잘 나가는 헤드헌터로 닥스HR 대표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기본소득운동에 참여하여(웃음)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

대표가 되셨습니다. 정말 인생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김세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김세준: 안녕하세요. 김세준입니다.

한인정: 선거 끝나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김세준: 아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 잘 먹고. 한동안 약간 침울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다시 밥을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시 기본소득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기 위해서 또 이렇게 다시 다짐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희원: 밥심이 있으시다고 하니, 뭐 걱정이 안 되는데... 그래도 바쁘신 일도 있으실 텐데 그 와중에 저희 프로그램에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김세준: 아, 제가 감사하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한인정: 저희 말고, 여기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웃음) 코난처럼 뒷조사를 좀 해보니, 되게 이미지가 있으시더라고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되게 잘 나가는 강연, 그리고 저서들, 이런 것도 있으시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요. 돌연 기본소득운동에 참가했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그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세준: 저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 살려고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정치학을 전공했지만, 직장생활을 아시아나항공에서, 인사팀에서 채용 담당을 했고, 그러다가 IMF 때 구조조정 담당을 했어요.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리스트도 작성하고 통보하는 역할도 하고. 그때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돌연. (웃음) 직장생활을 하다가 돌연…… 책을 여러 가지로 썼어요. 지금까지 서른다섯 권의 책을 썼거든요. 리더십 책도 쓰고, 동화책도 쓰고, 그다음에 취업 관련된 책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연 의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기업에서도 강연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국민대학교 겸임교수로 일하면서 학생들의 미래 진로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상담도 하고 교과목도 맡아서 강의를 하고 전국의 대학에서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기업에서 특강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왔고 그러다가 돌연 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인터뷰까지 이렇게 하게 됐네요.

한인정: 진짜 엄청 바쁘게 살아오셨네요. 아까 얘기하

시면서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스스로 먹고사는 걸로 기본소득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렇게 험난한 기본소득 운동에 뛰어들게 되신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세준: 글썄요, 험난한 줄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험난해질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그런데, 즐거운 험난함. 그리고 사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았을 때는 험난하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실 거예요, 2020년 하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받으면서 ‘아, 국가에서 이렇게 조건 없이 줄 수도 있구나’라는 인식이 생겼고, 대한민국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장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고 사람들도 플랫폼노동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구나 복지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본소득 국민운동이 시작되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확산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확산세가 좀 컸죠. 근데 그건 아마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도 저희는 편승해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험난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기본소득

서희원: 학교에 있으시면서 청년들 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으실 텐데, 지금 청년들이 더 힘들잖아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와 기본소득을 같이 묶어서 말씀해주신다면….

김세준: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청년들의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대기업들이 사람을 너무 안 뽑습니다. 예전에는 공채 같은 것도 있었죠. 학교가 떠들썩하고 그랬거든요. 3월, 9월 되면 캠퍼스에서 채용설명회가 열리고 그랬었죠. 우리들 일자리는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가에서는 자꾸 청년들에게 창업을 하라고 권하는데 청년들은 또 창업자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창업에 대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너무 외로운 거죠. 그리고 코로나를 맞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단지 취업교육이라든가, 청년들을 위한 창업교육, 이런 거 이외에 기본적으로 적어도 1년 동안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뭔가 터전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본소득이라는 걸 알게 됐죠.

특히 제가 예전에 이재명, 이번에 상임고문이 되셨지만, 대선 후보자의 책을 썼어요. 『이게 나라다 - 적폐를 청산할 전투형 리더 이제는 이재명이다』(2017), 『이게 나라다 2022 - 인간 중심 실무형 리더, 이제 이재명이다』(2021). 그분의 발자취를 이렇게 쫓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러면서 요게 답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더니, 또 강남훈 교수님이 튀어나오고, 강남훈 교수님을 또 연구하다 보니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는 조직이 있고, ‘이미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

구나’라고 해서 저도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강연요청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서도 했고 안동에서도 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넓혀오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죠.

서희원: 기본소득이 청년들한테는 도전, 기회, 리셋할 수 있는 기회…

김세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년을 위한 기본소득, 그러나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청년들

한인정: 그런데 사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는 좀 다르게 지난 정부에서도 일자리가 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청년들 역시도 기본소득보다는 우리 일자리를 원한다고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인식 조사만 봐도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청년층에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런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좀 분석해주신다면…

김세준: 청년들이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프레임 속에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누구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죠, 높은 급여와 높은 수준의 복지혜택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누구나 원하는데 이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년들한테. 필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면접도 준비해야 되고, 게다가 요즘 기업에서는 또 중고 신입을 원하거든요, 경력(자) 같은 신입을 원해서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르바이트도 없이 적어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다 보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절대적인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물론 경제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떤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절대적인 시

간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건, 정말 개인들한테, 사장들한테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청년기본소득이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경기도처럼 그러면 그래도 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 플랫폼 노동의 상당 부분을 청년들이 합니다.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국가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그리고 또 창업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 여건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창업현실은 창업을 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그냥 패자가 돼 버리죠.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면서도 실패를 했을 때도 먹고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강한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주어져야 되고, 또 우리 끈대적인 생각이 그런 거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자녀들한테 진짜 백억 원짜리 건물을 물려주고 몇백 억짜리 사업을 물려주고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고생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시겠어요? 정말 백 억 짜리 사업체를 물려주는데 자녀가 고생도 안하고 이걸 받는 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고생을 시켜야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물려줄 사회는 결코 그렇지가 못해요. 정말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이 전염병이 2년 이상 가는 이런 세상, 가난할 게 뻔하거든요. 이럴 때는 힘들게 뻔하니까 오히려 없는 돈 털어서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오히려 고기를 사 주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바로, 전국민기본소득은 못하더라도, 청년들한테 먼저 기본소득을 좀 해주는 게 국가에서 밥 한 끼 대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년들 먼저, 범주형 기본소득으로서 실시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좀 찬성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인정: 범주형 기본소득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과연 안정된 일자리를 위한 기본소득, 그리고 그게 전국민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어떤 논리도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 그러니까 범주형 기본소득은, 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기본소득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은 원래 고전적인 의미에서는 없죠. 보편성이 훨씬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청년기본소득을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현금보다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주고 이런 것들도 한국 현실에 너무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데 청년들한테 먼저 주거나 혹은 농민, 좀 급한 분들한테 먼저 지급을 해서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경제를 살린다는 체험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보편적 기본소득을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기본소득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정: 이렇게 딱딱 맞네요. 가교로서의 어떤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어떤 현실에서 출발한 문제 인식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본소득 지지자가 되셨고. 이 고민들을 중요한 거는 혼자만 하신 게 아니라 함께 풀어나가고자 만든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대해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 네 드디어 기대하던... 사실 저희 본부를 소개하려 나왔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한인정: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그 홍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을 향한 거대한 파도와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탄생

한인정: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이제 전면 해부해 볼 생각인데요. 우선 기국본이라는 단체가 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 대표님한테 기국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탄생 비화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김세준: 알에서 깨어났습니다, 박혁거세처럼.(웃음) 죄송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원래 10월에 군산에서, 여기 서정희 선생님도 계신데, 자발적인 모임이 생겼어요. 기본소득연구회라는 곳이. 시민들이 점차 기본소득 없이는 살아가기 힘들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만든 단체예요. 발족할 때 제가 거기서 기본소득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보고 이제 많이 고민했던 분들이 기본소득 전국적인 운동을 해야 되겠다... 국민운동은 새로운 전기가잖아요, 그전에는 전문가 분들이나 학자 분들 아니면 정치인 분들의 이너서클 안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운동본부잖아요, 국민운동본부.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분들이 모여서 이걸 확산시키자는 그런 운동본부이기 때문에 이걸 시작을 하려고 했던 분들이 꽤 있으셨던 거 같아요. 기본소득 농민운동도 사실 2010년도부터 시작되고 상당히 뿌리가 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까, 그전에 시도했으면 별로 이런 식으로 확산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2020년 말쯤에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제가 강의한 걸 보고 몇 분이서 이렇게 생겼구나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10월 말쯤에. 저도 얼떨결에 나갔는데 상당히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저도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시켜보자, 뜻을 모은 거죠. 그랬다가 12월 초에 특히 강남훈 교수님께서 또 합류를 해주시고 이래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강남훈 교수님 하면 정말 거목이시잖아요. 그분이 공동대표로 참여를 해주시고. 저는 그분이 상임대표를 맡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직책이 있으시고 학자로서 또 뭐 정치인과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있으셔서. 약간은 좀 고사를 하셨고 그러면서 저한테 상임대표를 좀 맡아보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고민을 했어요. 저

는 뭐 진짜 이렇게 들보잡이기도 하고 그런 공격도 좀 많이 당했어요. 네가 뭘데라는 공격도 많이 당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건 진짜 국민운동본부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이 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피부로 현실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본부가 꾸려져야 되지 않을까 너무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보다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거죠.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통했던 것 같아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그래서 발족식을 했고 그리고 걱정을 했죠. 이걸 어떻게 확산시킬까? 그런데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에 나가고, 국회에서도 이렇게 출범도 알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연락들이 오니까, 전국에서 우리가 이 지역에 출범을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2020년 12월 22일에 경남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내려가는데 여기로 또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최배근 교수님이 또 합류를 하셔서 그날 같이 토크쇼도 해주시고 그런 게 유튜브 생중계에도 나가고. 그러니까 1월부터 정신 없이 출범이 막 시작된 거죠. 이것들 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해가 있었어요. 이재명 조직 아니냐 이런,,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정치 조직 아니냐고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정말 순수하게 그런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특히 상주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농촌이 소멸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더라고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기본소득밖에 없다, 그래서 막 참여해 주시고. 마을잔치 같은 분위기기도 나고 막걸리 마시면서 출범식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막 온 것 같아요. 전철역에 아침에 특히 신도림역 이런 데 보면 출근시간에 거기는 정말 난리가 나서 안 걷고 있어도 이렇게 쪽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철을 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열기가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오해들

서희원: 대표님께서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기국본을 이

재명 대통령 만들기 외곽조직으로서 인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오해를 조금 풀 수 있는…

김세준: 그러니까 그게 언론의 힘이 컸던 거 같아요. 그 당시에 논쟁이 아주 치열했었죠. 작년 1, 2, 3월에. 저희는 되게 반가웠는데… 여당 내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분들은 유력하신 후보들은 기본소득에 상당히 부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첨예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이 퍼졌죠. 그러면서 기사에 뭐라고 했다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이렇게 기사를 내주시는 거예요. 저희는 비판적 지지를 했던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정강정책 1호로 기본소득을 내세우고 그래서… 저걸 지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민주당 내에서 집권 여당이죠 여당에서 기본소득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 게 별로죠.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기본소득당에서 해왔고 그래서 저희는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시민운동단체로서 근데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저희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저희가 축사 의뢰를 드리면 그분이 또 흔쾌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요한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이 또 축사를 다 해주셨거든요. 출범식마다. 사실 그분만 해 주신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순수 운동단체였고 대신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번에 대선이 있고 대선에서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내세우신 분이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되니까 우리는 이게 아주 좋은 기회다.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인정: 그렇게 이제 오해가… 종결이 된 거 맞죠, 여러분들? 사실 되게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 막걸리 마시면서 마치 마을 잔치 같은… 그러니까 다 사람들 마음 안에 뭔가 기본소득에 대한 필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성장한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거죠?

때를 만난 사상의 힘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의 폭발적 성장

김세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가 맞았던 것 같아요. 강남훈 교수님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때를 만난 사상은 막강한 군대보다도 강하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항상 출범식에서 축사를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그랬던 거 같아요. 하필 그때 때를 만난 거예요. 2019년도 아니고 2018년도 아니고 2020년에 때를 만난 것이죠. 전국적으로 저희도 당황할 정도로 확산이 됐으니까. 그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인정: 혹시 생각 나는 예시 같은 거 있으실까요? 만났을 때 내 삶의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이런 걸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김세준: 저는 상주도 기억이 나고, 특히 성남에서도. 성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모임에 인원 제한이 있었잖아요, 밖에서도 많이 기다리시고 못 들어오시고 그러셨는데, 성남 하면 체험을 하신 분들이죠, 이재명 성남 시장 당시에 청년들한테 기본소득을 주었으니까 기본소득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성남이 좀 더 뜨거웠죠. 제가 거기서 강연을 했거든요. 끝나고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분께서 떡볶이집을 하다가 좀 안 좋아지셨나 봐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오셨대요. 그분이 전국민 기본소득이나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모르셨을 거 같아요. 근데 답답해서 오셨대요. 듣고 나니까 이게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힘내라고 격려를 해주시기도 했고… 여수도 기억이 나는데, 여수는 청년이 처음으로 출범식에 참석을 했어요. 엄마가 어디 간다 그래서 자기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한 걸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현금을 뿌리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이걸 다 떠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바로 이번 대선에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공감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저는 기본소득 이슈가 핵심으로

등장을 해서 토론회도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대장동 사건, 뭐 이런 거에 다 파묻혀 가지고 기본소득은 나오지도 않았죠.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20대들에게 얘기할 공간도 부족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선 이후, 혹은 실패 이후

서희원: 대표님께서 상임대표라는 큰 직책을 맡으셨잖아요? 지금 대선이 끝난 시점에서 상임대표라는 위치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신지…

김세준: 저는 좀 더 제 역할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재명 대선 캠프에 각자 참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가 많을수록 후보자가 느끼는 압박도 좀 커질 것 같아서 저희는 참여를 해서 많은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헌혈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보자는 취지로. 저도 처음으로 헌혈을 해봤고, 굉장히 아프더라구요. 줍깅[줍기와 조깅을 합친 말] 행사도 하고. 그러니까 유세가 끝나면 우리들이 남아서 쓰레기도 줍고,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운동본부 차원에서 참여를 한 건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역할들을 좀 해냈는데… 질문이 뭐였죠?

서희원: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국본이 시민운동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만들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유력후보의 외곽조직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는 소멸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김세준: 아닙니다. 아, 이제 질문이 생각났어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어요. 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거는 이제 뭐 시간의 문제지, 보편적인 전 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

는 정말 좋은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겠구나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소득도 같이 끝나는 건 아닐까라고. 약간 본의 아닌 착각들을 했던 거 같아요. 실망을 하면서. 이 대선이 기본소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거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다시 생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기본소득운동은 도도하게 흘러 오고 있었는데, 이 안에 큰 파도가 있었고 우리가 파도의 끝까지 올라갔다가 (파도가) 잦아드니까 차분하게 다시 돌아 오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지, 이거는 대선이라는 사건이 있었을 뿐이지 기본소득이 끝나는 건 아니었잖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시 좀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다시 해봅시다, 그리고 기국본이 다시 기본소득을, 기본소득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잘 살기 위한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해내자라는 격려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저희가 뭣했어요, 한 번. 반성도 하고 평가하는 걸 광주에 가서 했었는데, 뭐, 저희는 갑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는. 그리고 오히려 운동을 좀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사단법인화를 한다든가, 이런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중심이 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기본에는 동의한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아직은 좀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기본금융이라든가 기본주택 이런 거는 찬성한다 하는 이런 분들까지 같이 묶어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심이 돼서 좀 더 묶을 수 있는 쪽으로 갈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역할들이 주어질 것 같아요. 기대가 큼니다. 압박이 올지 뭐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고개를 더 세우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여기 있는 우리들이 희망의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힘을 수록 우리를 쳐다보게 하고 우리가 그때 희망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함께 일할 게 많을 것 같네요.

김세준: 그렇죠. 그동안 정치공동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왔잖아요. 저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얼마 전에 찾아왔을 때 기본소득 공동행동을 더 강화하자, 연대를 더 강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는 계속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정: 아까 얘기해주신 그 부분 중에 기본은 참 좋은데 기본소득은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 다양한 층위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장점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통합을 해나가실 건지...

김세준: 그러니까 저희는 일부러 통합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냐면 일단 시간이 걸릴 거 같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그때 기본소득 공론화작업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본소득은 알면 찬성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높은 액수로 하는 것에 걱정이 있는 것이지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반대하는 분들 있죠. 기득권 세력들. 기본소득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이해해요, 왜

지금 기본소득이냐. 이해하지만, 어쨌든 기본소득이 실제로 필요한데, 걱정이 많으신 분들, 너무 착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어느 가정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 그러다가 좀 살림 형편이 핀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한 거야, 자녀들한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아버지 우리들한테 용돈을 줬다가 예전으로 어려운 상태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 정신이세요 하는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 용돈 받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앞으로 공론화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공론화 작업을 했더니 반대했던 분들이 상당수 찬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안에도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한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급진적으로 좀 하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필요하다는 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내부에서 앞으로 같이 토론하고 해나가야 하겠죠. 지금까지는 출범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공론화 작업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우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

쥬. 그런 것들을 정치공동행동이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랑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기본소득 관점에서 본다면, 20대 대선이란?

서희원: 또 한 번 대선 얘기를 조금 하면 대선을 준비하
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왔다 갔다
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국본이 어떻
게 바라봤는지...

김세준: 근데 왔다 갔다 한 부분은 전술적인 측면이 아
니었을까 싶어요. 비전이나 목표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선 과정에서 청년들, 특히 이대남들
이 좀 부정적인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게 좀 반대를 결집시
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희가 약간 후퇴를
했었고 그런 측면이었죠. 전체적으로 큰 틀은 변함이 없었
습니다

서희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싸움에 기
본소득은...

김세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술적인 전략적인 차원
에서 그랬고요. 특히 이번에 기대를 좀 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기본소득 가지고 막 서로 얘기를 하고 안심소득 얘기하
고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공론의 장이 사라진 거죠. 너무 그
프레임, 정말 부정적인 프레임, 대장동 이런 것들, 그런 거였
죠. 또 무슨 뭐 무당,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도 오히려 더 강력하고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인
전략을 썼을 텐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국가가 더 부담
을 갖지 않느냐 이런 쪽에 강해져서 약간 전술상 후퇴, 이런
것들은 좀 있었지 기초는 다 똑같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차(時差, 視差)를 두고 본 기본소득이 있는 복지국가

한인정: 이번 대선에 맞춰 저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에서도 기본소득 로드맵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혹시 보셨나

요?

김세준: 아, 그럼요.

한인정: 당연히 보셨으리라 했었어요. 그때 로드맵으로
저희가 제시했던 안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 그때 서정희 교수님과 이사장님이라 다 해가지
고 토론회를 했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책을 보는데 학
생운동 할 때의 심정으로 읽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
서 리얼리스트가 되자 막 이러면서 막 여기 계신 분들이 쓴
표현이... 정말로... 우리가 계속 읽었어요. 지금도 이렇게
좀... 확신이 저도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당 떨어질 때처럼,
그럴 때마다 읽으면 확신이 다시 생기고, 어쩔 그렇게 와 정
말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합시다, 하자 이런 것처럼 구호식
으로 책을 써 주셨잖아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좀 반
가웠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이거대로 됐으면 좋겠다, 몇 년 안에
90만 원으로 가고. 근데 그 당시에, 토론을 했을 당시에 제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출범식을 너무 많이 해서. 뭐 이런 거예요. 고성에 있다가 울
산을 가고. 거의 매일 밤을 새다시피 다니느라 대상포진도
오고 그랬었거든요. 또 그 당시에 공격들이 좀 많았을 때였
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경선을 하면서 반대 의견도 많고. 그
런 반대 의견을 자주 만나면서 그때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
웠죠.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고 다녔다면 시작은 좀 작게 합
시다, 그래야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이게 좀 더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작은 액수에서 시작을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예전에 바랐던 얘
기들이 나와서 나도 지금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하면서
출범식할 때 얘기했던 그 얘기를 좀 하고 다니고 싶었던 거
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어서, 그 토론회 때...
서정희 교수님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시작하는 거로서는 너무 좀 많지 않느냐
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오히려 너무 적극적이어서 좀 부

정적인 게 나오지 않느냐는 우려를 얘기하기도 그랬었거든요. 그거는 꿈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걸 실현시켜 나가는 게 저희 숙제잖아요. 몇 년이 걸리든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책을 읽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시작 -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기본소득 국민운동본부의 자세

서희원: 6월 1일이 지방선거일입니다. 대선 일정이 이제 끝났고 지방선거 때 기국본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어떤 할 일이 있을지...

김세준: 오히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더 자유롭게 더 적극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대선 때는 저희가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자꾸 어떤 후보랑 연관을 시키니까 그리고 선거법이라는 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근데 이제는 대선도 끝났고 그래서 이제는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지를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대선과정에서 농촌기본소득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 계신 분들 중에 특히 경북, 충남, 전남 그런 데 계신 분들이 호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단체라든가 이런 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유력하신 분들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을 저는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안민석 의원도 그렇고 조정식 의원도 그런데... 조정식 의원님에게도 한 번 갔었거든요. 저희가 지지선언을 하러 간 건 아니고 기본소득 공약을 내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이거는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도 지역의 각 본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아마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방선거를 통해서 저희가 더 많은 논의를 확산시키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희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김세준: 이제 그렇게 해 나가려고 다들 자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 지선에 많이 나가고 계시요. 그렇기도 하고 전북의 천호성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상임대표님이세요. 그러니까 청년교육본부 상임대표님이신데,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분이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데, 가서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얘기를, 이번 일요일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회원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신 분들은 이미 움직이고 계시 거예요.

서희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 로드맵을 만들었듯이 기국본에서도 지방선거와 관련된 로드맵이 새롭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준: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4월 중에 아마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여, 영원하라!!

한인정: 대선과 지선, 다 거쳐지고 나서 그 이후에도 기국본은 계속 유지되고 활성화될 텐데 그때 과제는 그럼 공론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김세준: 공론화일 거 같아요. 공론화일 거 같고, 이번 새롭게 탄생하는 정부에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도록 그리고 실현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역할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그 생각이 더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을 하고 있는데,

투쟁본부 같은 역할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단식농성을 할 일도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인정:머리를 이렇게 한 번...

김세준: 아니, 머리는 안 깎겠습니다. 수업도 들어가야 되고, 두상도 좀 미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아요. 근데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희는 뚜렷해요.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정관에도 있듯이 보편적 기본소득의 실현. 이제 출범도 거의 끝났어요, 전국 대부분의 곳에.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될 건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또 이런 동지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라든가 기본소득당, 이런 곳, 그 다음에 정치공동행동이랑 해나가야죠. 이제. 저도 이제 목소리 많이 낼 거예요. 뭐 하고 계세요, 이러면서 전화도 많이 하고 할 거예요. 왜 언론에 안 나오십니까, 할 거예요. 귀찮아지실 겁니다. 저 때문에.

기국본이 그리는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

한인정: 투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천막도 곧 치실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되게 멀다고 생각이 드는 것보다 행복한 그런 상상인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대표님이 생각하시고 기국본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소득이 있는 한국'의 모습을 좀 소설처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김세준: 저는 그걸 상상만 하면 좀 울컥, 울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제 수업을 듣는 제자들의 표정이 밝아질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성남시에서 기본소득을 받아본 청년들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사실 1년에 백만 원이에요. 만 스물네 살이 됐을 때 분기별로 한 25만 원 정도 받는 건데... 기본소득은 정말 액수로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꾸 그러죠. 용돈 수준(이라고). 근데 우리나라의 플

랫폼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2019년도에 50만 명에서 지금 220만 명으로 늘었거든요. 이분들 중에서도, 신문을 보면, 1억대를 버는 사람도 나온다고 자꾸 하는데 극소수고, 이걸 평생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가장들이나 예술인들이나 청년들이 지금 플랫폼노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분들, 특히 가장분들도 플랫폼노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 지인 중에서도 플랫폼노동을 하는 분이 있어서 커뮤니티를 좀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하루에 한 12시간을 일하면 한 10만 원 정도 가져간대요. 뭐, 비용 다 빼고. 한 10만 원을 가져가면 하루도 안 쉬고 30일 일하면 300만 원. 4인 가족의 가장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가 29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걸 목숨을 걸고 정말 위험한 환경에서... 얼마 전에도 장례식을 하는데 그분들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너무 막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노동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연 100만 원이면 월 8만 3천 원 정도인데 이분들이 (한 달에) 10시간은 좀 휴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한 달에 10시간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고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액수가 늘어날수록 좀 더 여유는 많아지겠죠.

저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콘텐츠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대박을 터뜨리잖아요, 한 번 뭘 하면, 그런데 이번 대선 과정에서 특히 연습할 시간도 없고 창작할 시간이 없어서 월 삼십만 원만 있어도 우리는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월 8만 원 수준이든 10만 원이든,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로드맵대로 정도 된다고 그러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된 노동을 하는 농부, 이런 분들도 자기가 평생에 너무 기르고 싶었던 작물,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꽃을 가꾸고. 청년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플랫폼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친구라도 만나서 등산이라도 좀 가고 사우나라도 좀 가고 막걸리라도 좀 마실 시간이 되고. 그 다음에 액수가 좀 더 많아진다 그러면 그 노동을 하시는 분들도 협상력이 강화가 되고... 또 저는 예전에 월급쟁이일 때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 하면 몸이 아파요, 정말 적성에 안 맞는 일 하는 분들 많



잖아요. 그리고 왜 3일만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 못 쉬잖아요. 그리고 이직을 할 때도 한 달간 좀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로 일을 하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쉬지 못하죠. 한 달이라도 생활비를 안 갖다 주면 가정이 좀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근데 이제는 한 달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러면서 재충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봉사라는 일이 하나의 명예로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제가 요즘 인류학 책을 많이 읽거든요. 기본소득을 공부하다 보면 인류학 책을 당연히 많이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하루에 3~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이제 다들 자유롭게 살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인간답게. 최소한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말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좀 활기를 갖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역동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인정: 시계의 초침이 좀 빨리 돌아서 그곳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세준: 저희한테 달렸습니다.

한인정: 이런 즐거운 상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같이 얘기해주셔서 저희 오후를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서도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소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파문’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님들도 앞으로 이렇게 같이 투쟁에... 투쟁으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세준: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요. 저희 CMS도 받습니다.(웃음) 저희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인정: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독자 분들께도 감사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